

정부,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안정 노력”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지만 가공식품은 2%대 비용 인상 요인·애로사항 점검해 대응 방안 강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0%대를 유지했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커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8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공식품 동향 및 대

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 2월 0.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된 체감물가의 상승률 역시 지난 2월 0.0%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겨울 동안 예년에 비해 양호했던 기상 여건과 더불어

어 국제 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떡, 과자 등 가공식품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9%에서 12월 2.3%를 기록하며 2%대로 오른 후 올해 1월(2.2%)과 2월(2.1%)에도 2%대를 유지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공식품은 구입 빈도가 높고 서

민 생활과 밀접하다"며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품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비용 인상 요인,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도 협력해 원가 분석 결과와 유통 채널별·품목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산업은행 - 미국 제너럴모터스 국내철수 이면합의, 한국지엠 “사실 무근”

해당 보고서, GM투자자들 위해 실적 등만 간단히 명시한 자료 “산은도 보통주로 전환 가능… 정부와 약속한 대로 철수 안 해”

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5년 뒤인 2024년 이후 '한국지엠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한국지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업계와 산은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는 한국지엠의 우선주를 2024년 이후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산은의 지분율이 떨어지면서 지배력을 잃게 되고, 결국 한국지엠의 철수를 지켜만보게 되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너럴모터스가 콜옵션을 통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현재 83%인 지분이 더 올라가면서 산은의 지분율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면합의가 아니라 보고서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GM이 마음대로 떠날 수 있도록 한국지엠과 산은이 불매 합의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며 "우선주와 보통주 등이 포함된

주간 계약을 할 때는 돈이 관련된 만큼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긴 수십 페이지 분량의 서류로 합의를 하는데, GM 투자자들을 위해 핵심만 간략하게 명시한 보고서를 보고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너럴모터스의 실적과 각 국별 사업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만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보고서다. 그러나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한국지엠과 산은과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는데, 이 문장만 보고 이면 철수 가능

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참고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전체적 배경이나 한국지엠과 산은의 합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문장만 보고 한국지엠의 철수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 역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GM이 일방적으로 산은의 지분을 깎을 수는 없다"며 "한국지엠이 국내에 10년 동안 남겠다고 한국 정부와 약속한 만큼 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LX는 지난 8일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받은 200만원의 수상금을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에 전액 기부했다.

“받은 사랑, 다시 돌려드립니다”

LX,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특별상 수상금 전액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최창환 사장은 "팬다가 받은 사랑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수상금 전액을 기부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LX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 캠페인 공익을 위해 관련영상을 자체보유 방송매체인 국토인터넷방송국(LBS)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또 사보 'LX공사보'에 관련 이미지를 게재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의 버팀목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 임종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에 얼마 전 진입했다"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동반성장 위한 상호협력 약속

이스타항공이 조종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이스타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은 최중구 대표이사, 신영근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항과 동반성장을 위한 근로문화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하는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1월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협약안을 타결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01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3차례 교섭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단체협약까지 체결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스타항공 최중구 대표이사는 "바쁜 스케줄에도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지난 7일 이스타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이 안전운항과 동반성장을 위한 근로문화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하는 체결식을 진행했다. 최중구 대표이사(왼쪽)는 "단체협약 타결로 노조와 회사는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근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의 원활한 소통이 안전운항과 고객편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스타항공의 지속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근로자 증세 부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되면 1년에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분석 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공제가 없다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16.5%)을 곱한 금액 50만원 만큼 증세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200만원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폐지 시 33만원이 증세된다. 신용카드를 1917만원어치 이용해 1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선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연맹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증세가 내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연맹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대 서명은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섰고,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뉴시스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